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관람객 3만여명 돌파

전주서 개최 80여개 기업·240여개 부스 참여

드론산업·기술·체험·해외전시관 등 운영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2019 드론산업 국제 박람회가 국내·외 드론기업들이 총출동하고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신기술 발굴, 산업 발전 기반을 위해 마련한 이번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는 국내외 80여 업체의 200여 부스가 참여해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지도화하는 실시간 맵핑 △산림·해안가 등 광역 감시(반경15km)용 하이브리드 드론 △대기측정센서를 통해 실시간

측정 후 경보 알람이 가능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드론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100분 이상 장기체공 및 광범위 순찰이 가능한 장기체공형 수소연료 전지 드론 등이 선보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운 드론산업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거리와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전시부스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드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됐고 드론 기업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금융 세미나와 국토부 역점사업인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설명회, 드론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3D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3D프린팅 팬클럽 △미니 메인보드제작 체험 △나만의 3D프린터 제품 만들기 △3D모델링 체험 등 3D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디자인 창작물들도 선보였다.

박람회 마지막날인 7일에는 드론축구 해외 수출 200만불 돌파 축하

행사도 진행돼 드론축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신개념 ICT융합 스포츠임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지역이 주력해야 할 드론산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미래산업 시장에서 전주시민의 개성있는 아이템 발굴 및 육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드론축구 부품 해외수출 200만불 달성

프랑스·중국·홍콩·일본 등에... 전주 중기 성장 '큰 도움'

시, 드론산업 국제박람회서 '드론축구 세계화 원년' 선포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가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주시 드론축구 관련 부품의 해외 수출량이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주시와 캠프종합기술원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세계최초로 첨단 드론기술과 탄소, ICT기술을 융복합해 신개념 드론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개발했으며

이후 전 세계 보급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저비교·(주)헬셀과 MOU를 체결하고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중국, 홍콩에 드론축구 용품을 수출하는 등 약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올해 일본에 성인드론축구부와 유소년드론축구부를 수출하면서 19억5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해 드론축구가 개발된 지 3년 만에 해외수출 총 20억원(약 200만 달러)의 매출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드론산업 국제박

람회'에서 '드론축구 부품 해외 수출 200만불 돌파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왕원 전주시장과 양근의 대한드론축구협회 공동대표(캠프종합기술원장)가 이를 기념해 올해를 '드론축구 세계화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포했다.

김왕원 전주시장은 이날 "주요 수출처로 일본내외에 643개의 점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동차용 기업 '오도박스 세븐'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드론축구의 광범위한 수출 루트 및 보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드론축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북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9. 7. 8.(월) NPS 국민연금공단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 '공간+문화=@' 주제로 문화 접목 프로그램 시행

전주시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간+문화=@'를 주제로 구도심 유휴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성 △공익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사)폭두 △수달 △전북근현대문화융합사업협의체 △착한사람들 △청춘그리다 △커넥트마케팅연구소 △푸른돌고래 등 7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향후 선정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7개 팀에는 팀당 300만원에서 최

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선정된 (사)폭두팀의 경우 차이나거리에 위치한 공간 '다가'를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니어 패션모델교육 및 패션쇼, 시낭송과 북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달팀·착한사람들팀·푸른돌고래팀은 모두 문화예술 작가들로 구성된 팀들로 지역에 위치한 작가 공유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근현대문화융합사업협의체의 경우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 리서치 및 리빙랩을 진행해 정리하고 서문 근대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관광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서

문을 기억하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춘리더팀은 구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에서 프리마켓과 버스킹 등 쇼핑과 공연, 오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끝으로, 커넥트마케팅연구소팀은 동문거리의 유휴공간과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한 '런닝맨 레이스 축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동문예술거리의 가치를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한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공모에 참여한 12개 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항생제 적정성 평가 '1등급'

예수병원, 7년 연속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 5개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예수병원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 7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항생제 투여 관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적절하게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강중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전국 80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김철승 병원장

15세 미만 유소아 급성중이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했다.

또한, 예수병원은 심평원에서 발표한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에서도 각각 1등급을 받았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평가해 약물의 오, 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심평원이 실시하는 평가다.

예수병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물 오, 남용을 하지 않고 환자 중심의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 5개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예수병원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 7년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항생제 투여 관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적절하게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日 정부 수출규제 조치

전북 상인들은 '뿔났다'

전일수퍼협동조합, 제품 반쯤... 불매운동 나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비싼 여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여과가 전복까지 확산됐다.

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은 모든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반품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200여명의 회원과 가맹점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와 함께 불매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박찬영 협동조합부장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매출이 5% 정도 떨어졌다"면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어떤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석훈 기자

농업인 태풍·호우 피해 예방 '만전'

전주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24시간 가동

전주시가 여름철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평균 수온 상승으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한 태풍 중 최대 3개 정도가 전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농업관련 부서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재해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시는 향후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3교대 24시간 근무의 비상체제로 전환, 재해 피해 예방과 농작물·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 재난 총괄부서인 시민안전담당관은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노후저수지개소와 대형관정 3개소를 보수·보강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농로 및 농수로 23개소 5km 구간을 정비해왔다.

또,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 동 농업재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제도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송효철 기자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천효정 작가와의 만남 가져

지난 5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는 '천효정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책마루 책동무'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작가를 초대해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김경희 책마루도서관장은 지난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함께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눴다.

이어, 이들을 작가에게 공급했던 질문들을 모아 천효정 작가를 직접 도서관으로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은솔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는 "책도 너무 재밌었고 만화같이 웃긴 그림들도 좋았는데 오늘 질문지로 뽑혀 선물도 받게 돼서 행복하다"며, "나도 천효정 작가처럼 멋지게 글을 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트윈세대(8~14세)들에게 책에서 얻는 즐거움과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배송하기 전 잠시 놓아둔 택배 휴먼 70대 굶겨

배송하기 전 잠시 놓아 둔 택배를 휴먼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분경 완주군내 도 모 건물 앞에 놓아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택배를 휴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송을 준비하기 위해 보관해 둔 택배를 휴먼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익산시내 아파트 침입

화장품 휴친 50대 붙잡혀

아파트에 들어가 화장품을 휴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경 익산 시내 모 아파트에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PC방 화장실서

지갑 휴친 40대 딸미

PC방 화장실에 있던 지갑을 휴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지갑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진열된 식물 휴치다 덜미

진열된 화분에서 식물 휴치다 덜미

진열된 화분에서 식물을 휴치다 덜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경 전주시 완산구 모 건물 앞에 진열된 화분에서 11만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휴치다 덜미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